

#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 33만1250원

제주상의, 재래시장 가격 조사… 지난해보다 2%↓  
과일류 가격 하락 영향… 육류·해산물류는 상승  
명절 특수 수요 변동성 남아… 분산 구매 전략을

올해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가격 하락이 전체 비용을 끌어내린 영향이다. 다만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수요가 몰리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3~4일 도내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유선 조사를 통해 제수용 품 26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준비 비용이 지난해 (33만7750원)보다 약 2% 하락한 33만125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과일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과일류 7개 품목 구매 비용은 9만7300원으로 전년(11만 3300원)보다 1만6000원(14.1%) 감소했다. 특히 배(5개)는 전년보다 1만원(28.6%) 내린 2만5000원, 밤(1kg)은 3000원(23.1%) 하락한 1만원, 단감(5개)은 2000원(20%) 내린 8000원, 골(노지 1kg)은 1000원(16.7%) 하락한 5000원 선에 거래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류 및 해산물류 6개 품목 구매 비용은 14만6500원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소고기(설도 1kg)가 3000원(5.5%) 오른 5만8000원, 계란(일반란 10개)은 100원(2.9%) 오른 3500원 선으로 조사됐다. 해산물류 가운데 제수용 수요가 많은 옥돔(국산 1마리)은 지난해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7000원(25%) 상승한 3만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돼지고기(오겹 1kg)는 3000원(9.1%) 하락한 3만원 선으로 조사돼 품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채소류와 가공식품류도 소폭 상승했다.

채소류 7개 품목은 3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500원(1.6%) 상승했는데,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를 보인 가운데 애호박(1개, 3000원)이 500원(20%) 오른 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가공식품류

(6개 품목)도 5만6450원으로 1900원(3.5%) 상승했는데, 가래떡(1kg)이 51.5%(3400원) 급등한 1만원 선, 송편(500g)이 7.1%(500원) 오른 750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팔시류(2개, 1만4000원)은 12.5%(2000원)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제주상의는 “육류와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일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체적인 차례상 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그러나 명절이 임박할수록 배, 육류 등 수요 집중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저장성이 좋은 가공식품과 건어물은 미리 구매하고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와 육류는 가격 추이를 살피며 구매 시기를 조절하는 ‘분산 구매’ 전략을 제안했다. 오은기자

청렴도민감사관 공개모집

도교육청, 오는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제4기 청렴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청렴도민감사관은 학교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13명 이내로 도민 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데 있는 도민 중 학사, 교육행정, 법률, 회계, 건축, 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가이다. 제4기 감사관의 임기는 오는 4월부터 2년간이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감사관실), 전자우편(bon0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설중매(雪中梅) 8일 제주시 오라동 도로변에 핀 분홍 매화꽃에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한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청소년 도박·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사업

도교육청, 13일까지 관련 사업 참여 전문기관 공모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이버 윤리관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문기관과 연계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2026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집중 상담과 치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사업은 온라인 도박 예방 교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다.

접수는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공문 접수 또는 방문 제출(사본 5부 포함)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김채현기자

## 제주서 미기록종 ‘엉터리고치벌’ 발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 솔수염하늘소 유충 기생

제주에서 미기록 ‘엉터리고치벌’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특히 이 곤충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종인 솔수염하늘소 유충에 기생하는 것이 확인돼 ‘천적’ 가능성도 나왔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제주 미기록 종인 ‘엉터리고치벌’(Doggerella chasanica)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곤충은 내륙에는 서식하고 있으나 제주에서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월 중순 사이에 발생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엉터리고치벌은 솔수염하늘소 유충에서 기생했으며 야외 기생률은 평균 4.2%에 달했다. 유충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어 죽게 해 ‘소나무 불치병’으로 불리는 재선충병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연구 결과는 작년 국제 별목 연구 전문학술지인 Journal of Hymenoptera Research(2025년 제98권)에 실렸다.

백금탁기자

## 도시 빙집 고쳐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도, 동 지역 빙집 5곳 모집

5년 이상 무상 임대 조건

제주시·서귀포시 도시 지역의 빙집이 청년 등을 위한 공공 주택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동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빙집을 고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빙집 실태 조사와 지난해 빙집 정비 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공 주택 공급 모델이다. 동 지역 빙집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빙집에 대해 소유자가 제주도에 5년 이상 장기간 무상으로 임대를 하면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빙집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은 빙집 1곳 당 5000만원 이내에서 이뤄진다. 지원 내용은 창호, 도배·장판, 방수, 외벽 단열, 화장실(타일·변기) 등

주택 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다. 다만 가구와 집기 구입,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희망자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접수처는 제주도청 주택토지과(710-2693), 제주시청 건축과(728-3663), 서귀포시청 건축과(064-760-3005)다.

앞서 2024년 제주도의 빙집 실태 조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 지역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1등급 빙집은 63곳, 안전 조치나 수리 후 거주나 활용할 수 있는 2등급 빙집은 286곳이었다.



부영 사랑으로

## 취임

### 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기대가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一脈人들의 긍지의 요람.  
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취임을  
격하게  
축·하·합·니·다!  
사랑과 응원보냅니다!



용 맥 회  
(제주제일고등학교 20회기 회장단 모임)

강희석(27회)

## 취임

### 한라신협 상임이사



이호성

한라신협 상임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녹색회 회원 일동

## 취임

### 한라신협 상임이사



이호성

한라신협 상임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1세기 회원 일동